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5.00원 상승한 1,103.20원에 마감

22일 환율은 전일대비 5.00원 상승한 1,103.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30원 상승한 1,100.50원에 개장했다. 갭업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화가 상승하고, 위안화 약세를 보이자 이에 연동하며 상승 폭을 확대하였다. 오전 중 코스피 지수 상승에 상승 폭을 줄이기도 하였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 매도세 확대에 코스피지수가 낙폭을 키우자 환율은 재차 상승하며 1,104.80원을 터치한 뒤 소폭 하락하며 전일대비 5.00원 상승한 1,103.2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64.15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00.50	1104.80	1100.40	1103.20	1102.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60.23	1066.07	1060.23	1062.76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36.35	1344.61	1335.17	1342.38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6	-0.68	-1.68	-3.1
결제환율(수입)	0.12	0.61	0.8	1.02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훼손되며 1,10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03.20원) 대비 2.35원 상승한 1,105.55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코로나19 관련 우려에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훼손되며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보급 및 접종 시작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홍콩에서도 일부 지역을 봉쇄했다. 또한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가 봉쇄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훼손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되며 환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순매도세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역송금 경계는 환율 상승압력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월말 네고물량 및 1,100원대 위에서 수출업체의 공격적인 매도세는 상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02.00 ~ 1109.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680.05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35원 ↑
	■ 美 다우지수 : 30996.98, -179.03p(-0.5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8.4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85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